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 쓰기 수업사례: 고등학교 보충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형심**·천승미***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쓰기 수업과 평가의 실제 |
| II. 이론적 배경 | 1. 보충반 학생들의 실제 수업 사례 |
| 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평가의 환류효과 | 2. 인터넷 기반의 쓰기 평가 사례 |
| 2. 쓰기교육과 평가 | IV. 결론 및 제언 |

[초록]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가지 기능을 모두 평가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도입이 발표되면서 학교 현장은 기존의 읽기·듣기 위주의 수업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말하기·쓰기 수업이나 평가에 대해 축적된 현장 경험은 부족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교사들은 현행 입시제도와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인문계 고등학교 보충반(수준별 수업 하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과업 중심의 쓰기 활동과 인터넷 기반 쓰기 평가 경험을 나눔으로써 학교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주제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수업, 쓰기평가, 쓰기활동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이다(NRF-2011-332-A00209).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imsim92@naver.com

*** 교신저자, 서울디지털대학교 영어학과 조교수. smcheon@sdu.ac.kr

I. 서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은 학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언어의 4기능에 대한 영어능력을 인터넷 기반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며,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향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현행 수능영어를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민감한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수능문항 유형에 따라 듣기와 읽기에 집중되어 왔던 기존의 수업방식에 변화를 꾀해야 하는 과제에 맞닥뜨렸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영어과목이 ‘실용영어’ 과목군과 ‘영어’ 과목군으로 구분되고, 각각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3급과 2급에 연계되도록 구성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a).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을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 대체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15년(2016학년도대입)보다 늦추는 분위기가 포착되었는데, 학교현장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시험을 대체하게 되면 사교육이 성행하고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¹.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활용하는 대학의 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다. 여전히 주요 대학들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입시 활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2013학년도 7개 대학에 비해 크게 증가된 34개 대학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입학전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대학들이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실용영어교육의 확산과 시험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².

이렇듯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실은 현장의 영어 교사들에게 수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 의사소통중심의 수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국가영어능력

1. 수능영어시험 NEAT로 대체... 3년 늦춰질 듯, 중앙일보, 2013년 1월 16일자

2. 교육과학기술부정책정보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52755>

평가시험의 도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없기에 교육당국은 현장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고루 발전시켜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간 소홀히 다뤄왔던 말하기와 쓰기 영역을 새롭게 지도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a). 게다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영어 대체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학교들은 현재 기존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유형에 맞는 수업도 개발하고 적용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a)은 현장의 교사들을 지원할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입시와 가장 밀접한 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중에 교과서를 활용한 말하기와 쓰기 수업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조건을 고려한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제시된 수업모형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유형에 맞게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도구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시행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과 수업여건에 맞게 창의적으로 교실수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일반적인 수업 모형이 모든 교실 상황과 학생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만들어 가고 검증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한다면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인문계고등학교에서 보충반(수준별 수업 하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쓰기 수업과 인터넷 기반의 쓰기 평가 사례를 통해 얻게 된 교육적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평가의 환류효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은 평가의 환류효과(washback effect)를 통해 학교 영어수

업을 말하기와 쓰기를 강조하는 의사소통중심으로 바뀌게 하고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쓰기 능력도 신장시킬 것이라고 기대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b). 환류효과란 교수 및 학습에 미치는 시험의 효과로, 단순히 교실 환경 안에서 교사와 학생에 미치는 효과 뿐 아니라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안에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까지 미치는 효과로 정의된다(Andrews, Fullilove, & Wong, 2002; Hughes, 2003). Bailey(1996)는 평가도구로 인해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교재, 교육과정 등이 바뀌고 학생들이 평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능 시행초기에 기존의 학력고사와는 다른 형태의 시험 문항이 출제되면서 이러한 환류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다(김용명, 2010; 허준, 윤석화, 2004). 즉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듣기 문항의 도입은 1997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이 정규교과과정에 포함되어 말하기 능력을 위한 듣기 중심의 초등영어교육이 활성화되게 하였고, 사고력 중심의 언어사용능력을 측정하는 읽기 문항 유형은 그 당시 교실수업을 지배해왔던 상향식 정독위주 읽기 수업에서 하향식 이해위주의 읽기 전략과 기술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환시켰다. Hughes(2003)는 시험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될수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험을 위한 준비가 모든 교수학습 활동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쓰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수능영어시험을 대체하고자하는 계획은 대학입시에 민감한 우리나라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환류효과를 불러 일으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학생들의 쓰기 능력 강화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b)의 연구 결과에도 잘 나타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쓰기 지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교사들은 ‘듣기 및 읽기 위주의 입시’를 가장 큰 어려움의 요인으로 답해 수능평가유형이 교실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평가의 환류효과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실용영어중심의 영어교육과정목표와 내용을 충실히 달성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대체 여부 발표에 따라 들쭉날쭉한 사교육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당초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제안됐

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게 된다. 이는 수능대체 시 학교에서 영어쓰기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기존보다 영어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불안감에서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 2012). 현행 수능영어시험은 혼자 하는 학습이 가능하지만 쓰기의 경우 피드백이나 첨삭지도를 받을 때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어학연수나 영어캠프, 과외,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는 학생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김은정(2012)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부정적인 환류 효과 가능성을 우려했다. 즉 앞서 논의된 사교육의 증가나 지역 및 수준차에 따른 불균형 외에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평가함으로써 인해 증가되는 학생들의 시험 부담감, 일정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상실할 가능성, 예상문제에 대해 모범답안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가능성 등을 우려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을 돌아 봤을 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2012)는 영향 평가를 통해 평가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 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시험의 잠재적인 환류 효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학습자와 교사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쓰기 교육 및 평가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쓰기교육과 평가

1) 쓰기 교육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문자언어의 사용을 증가시켰고, 실생활에서 문자언어사용능력은 곧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양만섭, 손영귀, 2009).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습관을 조사한 Grabill과 Pigg(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글쓰기 유형으로 응답했다. 그 다음은 이메일 작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글쓰기 활동으로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글쓰기 활동은 이전보다 문자언어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의사소통을 위한 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영어쓰기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양만섭, 손영귀, 2009).

쓰기는 문자언어의 특성상 시각적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기능들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면서 언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기를 수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Rivers, 1981, 양만섭, 손영귀, 2009에서 재인용). 민찬규(1994)는 영어교육에서 쓰기 교육이 갖는 장점에 대해 정리하면서 쓰기가 학습자들의 자기발견적 학습을 돕는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말하기를 할 때와 달리 적절한 어휘나 문법사항 및 표현을 스스로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낸 오류를 스스로 인식하고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쓰기 교육은 기초 단계에 있는 학습자에게는 영어 단어나 문법 구조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습득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생각, 경험 등에서 얻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종합적인 학습-교수 방법으로서의 장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듣기, 읽기, 말하기 등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고, 쓰기 자체를 목표로 가르치기보다 한 단원을 마무리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양만섭, 손영귀(2009)는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영어쓰기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 영역은 읽기>듣기>말하기>쓰기 영역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영어쓰기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어쓰기지도에 투자하는 시간은 매우 적었다.

그 원인으로서는 앞서 살펴봤듯이 그간 입시에서 쓰기가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 외에도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교실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b). 즉석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한 말하기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작문 하나하나를 따로 봐줘야 하는 쓰기수업은 교사들에게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성희(2012)는 영어작문수업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교사의 효율적인 피드백, 첨삭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여 양질의 쓰기 수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2) 담화수준의 영어쓰기 지도

영어중점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박지선, 이문복(2012)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영어쓰기 교수의 대부분은 단어나 구 수준의 쓰기(73.7%)나 문장 수준 쓰기(57.9%)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문단 수준(29.8%)이나 에세이 수준(21.1%)의 쓰기 지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영어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초기 학습자에게는 정확한 문장구조 사용을 연습할 수 있는 문장 단위의 작문이 반드시 필요하고, 문장완성, 받아쓰기, 문법변형연습 등과 같은 쓰기활동은 학습자들이 철자나 문법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c; Brown, 2007).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쓰기를 지도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문법을 위한 쓰기연습 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Taylor, 1976),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쓰기활동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문장을 뛰어넘는 언어 단위(담화) 수준의 쓰기지도로 통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c).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쓰기문항유형을 살펴보면 담화 수준의 쓰기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표 1]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2급과 3급에 출제

[표 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문항 유형

| 문항유형 | 특징 | 제한단어수 |
|---------------------|---|---------------|
| 일상생활에 관한 글쓰기(2급) | 제시된 세 가지의 항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이나 상황, 혹은 일상적인 사물이나 소재에 관하여 글작성 | 60-80 |
| 자기의견쓰기(2급) |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항이 제시하는 핵심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입장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서술 | 80-120 |
|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3급) | 제시된 세 개의 그림 및 핵심단어 및 어구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 주어진 상황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2-3개의 문장으로 작성 | 15-25 |
| 그림의 세부묘사 완성하기(3급) | 문두에 주어진 어구를 바탕으로 그림에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문장을 완성 | 하위 문장당 10단어이내 |
| 편지쓰기(3급) | 제시된 세 가지 정보를 중심으로 이메일이나 편지를 작성 | 40-50 |
| 그림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3급) | 연속된 두 개의 그림을 순서대로 묘사하고 다음에 전개될 상황을 추론하여 이야기를 전개 | 40-50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c.

되는 각 문항유형의 특징과 제한단어수를 정리한 것이다³. 쓰기시험은 총 6개의 문항 유형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제한단어수가 15~25개인 ‘상황에 맞는 짧은 글쓰기’와 10단어 이내의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를 제외한 4개 유형은 모두 문장 이상의 담화구성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 글을 분명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쓰는 능력은 단순히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 이상을 요구한다. 즉 학습자들에게 글의 응집성(cohesion)과 일관성(coherence), 그리고 장르적 담화구성(organization of genre)에 대한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담화구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c; Taylor, 1976).

3) 쓰기평가

학교에서 쓰기교육이 진행되었다면 교수 및 학습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학생들이 요구된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 과정 중 학생들의 쓰기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정확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미래의 학습 계획을 보완할 기회를 얻기 때문에, 평가는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박정민, 김현주, 2010; Cohen, 2001).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 형태로 이루어지는 쓰기평가는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직접평가로서(최연희, 2002), 훈련받은 평가자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취 결과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치로 표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쓰기평가에 대한 부담은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박지선, 이문복(2012)의 연구에도 잘 나타나는데, 학교에서 쓰기평가를 하지 않거나 성적반영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설문에 참여한 63.2% 교사들이 공정한 채점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쓰기평가의 어려움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 쓰기교육을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데 있어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말하기 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a)은 단위 학교에서의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원에서 말하기 및 쓰기 채점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연계된 쓰기 수행평가문항을 제공하고 자동채점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의 답안에 바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급과 3급 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필요에 따라 선택응시가 가능한데, 2급 시험이 기초학술영어활용능력을 평가하는 반면 3급 시험은 실용영어활용능력을 평가한다.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의 상세화, 평가척도 구분의 명확화, 채점자 훈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최연희, 2002), 교사들에게 쓰기 평가방법에 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평가도구의 모형과 평가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침서 형태로 개발하여 배포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d). [표 2]에 의하면 쓰기시험은 과제완성, 내용, 구성, 언어사용의 4개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데, 개별 학교 상황에 따라 혹은 수행평가 문항 유형에 따라 과제완성, 내용, 언어사용의 3개 영역으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e).

[표 2] 쓰기수행평가 문항채점 영역 예시

| 채점영역 | 설명 |
|---------------------------|---|
| 과제완성 (Task Comple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진 과제에 대해 제시된 길이의 글로 썼는가? 주어진 그림, 자료 혹은 지시문에 알맞은 글의 유형인가? 제시된 조건이 있을 경우, 제시된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가? 제시된 단어나 어구가 있을 경우, 주어진 단어나 어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 내용 (Cont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이나 자료가 제시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내용인가?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글의 목적에 맞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가? 문장간의 전개가 논리적인가? |
| 구성 (Organiz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문이 명료한가? 주어진 글의 종류에 적절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가? 주요 아이디어의 연계가 자연스럽고 논리적인가? 주어진 글의 구성 전개가 짜임새 있는가? |
| 언어사용 (Language U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법 사용이 적절한가? 영어 문장인가? 어휘 사용이 적절한가? 철자 오류가 없는가?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e.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평가가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의 장점은 기존의 지필 고사가 텍스트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사사진, 동영상, 음성 등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자료의 제시가 가능해서 텍스트에 비해 의미 전달시간을 줄일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f). 또한 단계별 진행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듣기, 말

하기, 쓰기시험의 경우 문항별로 제한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지필평가에서 문항별로 제한 시간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매년 답안지를 배부하고 회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은정(2012)은 컴퓨터 기반 평가가 시험지 배부 및 채점, 답안 관리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들었다. 하지만 전용 시험장이 비교적 잘 구축된 토플의 경우에도 오류발생사례⁴가 있기 때문에 오류발생 예방 및 발생 시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많은 인원이 접속해서 시험을 치는 상황에서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오류 발생의 가능성도 있고, 각 시험장의 시험환경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중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국회입법조사처, 2012; 이은정, 2012). 또한 학생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기는 하나 영어타자를 연습할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쓰기능력이 아닌 타이핑 능력에 의해 평가가 영향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채점의 공정성과 함께 변화되는 시험 환경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염두에 둔 쓰기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쓰기 수업과 평가의 실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학교영어수업을 의사소통중심 수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그 지향점이 갖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가 부딪치는 어려움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금까지 쓰기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봐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표로 하는 학교수업으로의 변화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 즉 우리나라 예비교사 교육과정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실수업을 전제로 영어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오래 전부터 가르쳐 왔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도 이미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사와 학교들이 있다. 따라서 지금 교육현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단위학교에서의 변화된 수업 경험이 축적되고 확산되면서 영어수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

4. 26일 토플 시험, ETS 서버 이상으로 취소 '소동', 머니투데이, 2012년 5월 26일자

위학교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수업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한 서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쓰기수업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보충반 학생들의 실제 수업 사례

1) 수업학급과 수업 운영의 특징

본 수업은 2012년 한 해 동안 서울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말하기·쓰기 수업에 대한 사례이다. 대상학급은 3+1으로 진행된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가장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로 구성된 보충반이다. 말하기·쓰기 수업은 정규수업과정 중 일주일에 2시간씩 편성되어 있었고 2차시 수업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블록 타임제 수업이었다. 말하기와 쓰기의 2가지 기능이 모두 지도되었고 평가도 이루어졌으나, 준비 없이 발화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이 쓰기 활동이 선행되어 일어났고, 따라서 본 연구는 쓰기 수업에 대한 사례를 기술하고자 한다.

[표 3] 수업 및 수업학급의 특징

| 수업내용 | 대상학년 | 학업수준 | 학급규모 | 수업시수 | 교재 |
|----------------|-------------|------|--------|-------|---|
| 말하기 · 쓰기 | 고등학교 1학년 | 하 | 14-21명 | 2시간/주 | 교과서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능률교육) + 부교재 |

이 학급의 가장 큰 장점은 보통 30명 안팎의 인원수로 구성된 다른 학급에 비해 학급 규모가 월등히 작다는 것이다. 장수명, 최형주(2004)는 학급규모감축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학업성취개선에 더 효과적이고, 학급 규모가 작을수록 교사가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수행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보다 적합한 교육환경이라고 하였다. 특히 쓰기 수업의 경우 주제에 관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급이 정서적으로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줄 수 있었고, 스스로 영작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급이 필수적이었다. 학생들도 작은 학급을 더 선호하여 성적이 오르더라도 반을 이동하지 않고 보충반에 남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낮고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여 뒷 반들과는 다르게 수업목표를 설정해야 했고, 다양한 소규모 활동이나 게임 등으로 수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수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학생들 수준에 맞는 워크시트를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모든 수준별 분반들이 교재는 동일하게 사용했지만, 보충반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내용을 선택해서 활용하거나 워크시트로 재구성하곤 했다.

한편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수준별 평가방안의 부재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본 수업도 학생 수준에 따라 수업을 다르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쓰기 수행평가는 다른 분반과 동일한 평가기준에 의해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높은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도 고려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위한 워크시트를 별도로 제작하였고, 스스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없는 보충반 학생들을 위해 수업시간 활동만으로도 수행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2) 과업과 활동 중심의 쓰기 수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a)은 쓰기를 직접평가방식으로 시행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풀이 위주의 문법번역식 교수법만으로는 수업 활동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소개하였다. 그 중에서 과업중심교수법은 학교 현장에서도 익숙한 지도방법으로 교사가 학습자의 특성, 언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업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들이 교실 안에서 스스로 목표언어를 사용하도록 과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Willis, & Willi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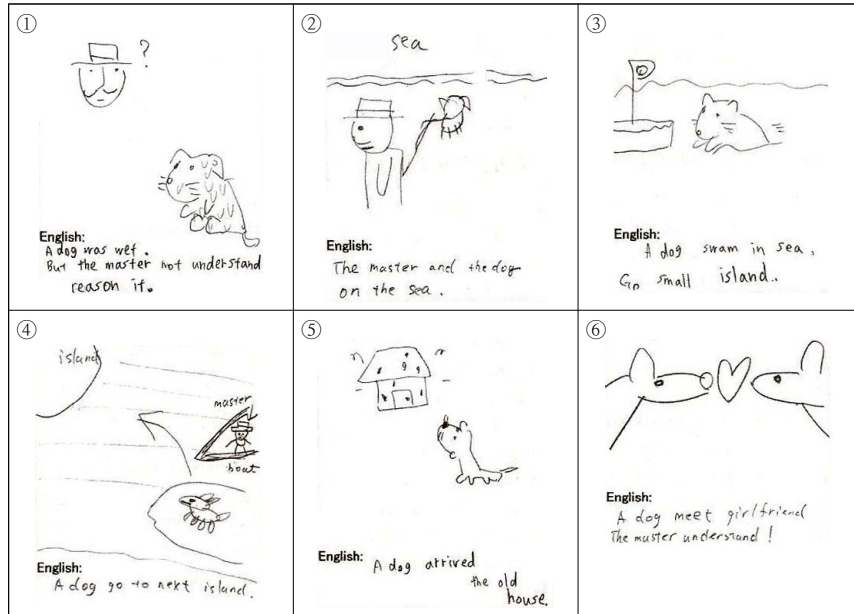
본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과업을 통해 쓰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했는데, 보충반 학생들의 경우는 글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철자나 문법구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쓰기의 변형된 형태를 소규모, 또는 개인별로 하는 활동이 많이 활용되었다. 독립적인 쓰기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모델

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언어의 특징에 주목하도록 유도하며, 통계 작문과 유도 작문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학생의 독립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좋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a)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 동기부여가 잘된 과업일수록 수업중 학생들의 적극성이 돋보였으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두 가지 활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한다.

① **Running Dictation:** Running Dictation은 달리고 받아쓰는 활동으로 짝 활동이나 모둠활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학생들이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다. 본 수업에서는 짝 활동으로 구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활동의 진행 순서는 의사소통의 순서가 잘 드러나는 영어대화문을 교사가 선택하여 종이위에 문장들을 적고, 그 종이를 4-6 부분으로 나누어 잘라 교실 벽 여러 군데에 붙여 놓은 후, 학생들로 하여금 벽에 붙어 있는 영어표현들을 자신들의 워크시트에 정확하고 빠르게 옮겨 적게 하는 활동이다. 짝 활동에서 한 명은 runner, 다른 한 명은 writer가 되는데, runner인 학생이 가서 벽 위의 문장들을 읽고 암기한 후 writer에게 전달하면 writer가 철자와 구두점까지 정확하게 받아 적어야 한다. 이 활동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모두 통합된 활동으로, 교사가 읽어주고 받아쓰기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 스스로 문장을 읽고 전달할 기회를 주면서 runner와 writer 모두에게 책임 있는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동성이 돋보인 활동이었다. 본 수업의 경우 ‘식당에서 주문하기’와 같이 의사소통의 진행순서가 명확한 구어체의 표현을 학습한 후 해당 표현을 문어체로 다시 작성하는 쓰기활동의 형태로 이 활동이 활용되었다.

② **Picture Dictogloss:** Willis & Willis(2007, pp.80-81)에 의하면 Picture Dictogloss는 초보 학습자들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후 그 이야기를 언어적으로 재구성하게 하는 대신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 활동이다. 교사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그림을 계속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들은 단어에 대해 그 어느 것이라도 그림 속에 같이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은 책에 소개된 Picture Dictogloss의 한 예이다.

[그림1] Picture Dictogloss의 예시



자료: Willis & Willis, 2007, p.81.

한편 본 수업에서는 이 활동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 문항 중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 유형을 위해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해당 문항 유형에 맞는 그림을 하나 선택한 후 학생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채 그림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들려주었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학생들이 그림으로 표현하게 했는데, 그림의 정확성을 위해 배경과 사람의 행동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하게 하였다. 학생들의 그림이 완성된 후 원래의 그림을 제시하며 자신의 그림과 비슷한지 비교하게 하였고, 그 그림을 만들어낸 영어 문장들을 PPT로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 이 때 그림묘사를 위해 현재진행형이 쓰였음을 강조하면서 언어 형태에 주목하게끔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그림 밑에 배웠던 표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그림을 묘사하는 영어 문장을 현재진행형을 사용하여 쓰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그림으로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5. 부록 1 참고.

않고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자신의 그림이 원래의 그림과 비슷하게 표현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큰 만족감을 보였다.

황○수: 수업시간에 그림 그리기 활동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영어로 말하거나 쓰는 것에 자신이 없는데 영어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니 수업 시간에 부담이 적었어요.

김○진: 공부하는 것 같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제가 영어문장을 듣고 그린 그림이 원래의 그림과 거의 일치해서 신기했어요.

유○희: 영어는 거의 포기했고 어렵고 지루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맞춰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친구들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어 경쟁하듯이 그렸어요.

조○연: 들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본 후 영어로 써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림을 정확하게 상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3) 담화구성을 위한 쓰기활동

보충반 학생들의 쓰기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써야 하는지, 또 그 내용을 조직하여 어떻게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령,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소개하고 영화의 줄거리를 몇 문장으로 요약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줄거리를 우리말로 정리하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또한 문장과 문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적절한 대명사나 연결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논리적인 내용 연결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자연스러움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앞 문장에 나온 명사를 다시 지칭하고자 할 때 대명사를 사용하는 대신 동일한 단어전체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문장 간 연결을 위한 접속사는 “and”나 “so”, “because”와 같은 한정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연결사 없이 짧은 여러 개의 문장들을 열거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비약된 내용의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문법이나 어휘 선택의 적절성, 철자와 같이 명시적으로 오류가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정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본 수업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좋은 예시의 단락을 보여주거나, 한 단락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글쓰기 틀을 워크시트로 제시하는 방법 등이었다.

[그림2] 담화중심 글쓰기를 위한 워크시트

Read the following letter, and write a reply suggesting a solution to the problem. You should make at least two suggestions for this problem.

I like a boy, but he doesn't know how I feel about him. What can I do?
from Miss Lover

| | |
|------------|--|
| 시작 (1문장) | |
| 해결책 1 | |
| 설명 1 (3문장) | |
| 해결책 2 | |
| 설명 2 (3문장) | |
| 끝맺음(1문장) | |

Dear Miss Lover

[그림 2]는 고민이 있는 친구에게 조언하는 글을 편지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워크시트인데, 조언의 편지글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글의 구조를 단계별(시작-해결책1-설명1-해결책2-설명2-끝맺음)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단락의 완성을 위해 써야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⁶. 영어 문장표현은 학교에서 사용했던 자체 제작 교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령 편지글을 시작하는 문장과 끝맺는 문장은 각 학생들의 내용과 상관없이 공통적인 표현이 가능하므로 교재에 제시된 여러 예문 중 학생들이 선택하여 내용을 채울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교재에 제시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교재를 참고하여 자신이 전하고 싶은 내용만 뒷부분에 추가하여 문장을 완성하면 되었다.

물론 이 부분은 교사의 도움도 필요했는데, 학생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유사할 때는 칠판에 적어 변형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단계별로 짧은 문장의 글쓰기가 완성되고 나면 하단에 이 문장들을 엮어 하나의 완성된 편지글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때에는 독립된 문장들이 연결되면서 필요한 연결사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단락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

6. 부록 2 참고.

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글의 내용과 형식면에서는 워크시트로 도움을 주고 영어표현은 교재의 예문을 활용하도록 지도하면서 글쓰기 활동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던 수업이다. 보충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글쓰기 활동보다 글을 쓰기 위한 논리적인 구조나 문장을 시작하기 위한 표현 등을 제시하여 자신의 과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수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문장단위의 글쓰기를 넘어선 담화수준의 글쓰기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김○혜: 영어로 한 문장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책이랑 선생님 도움 받아서 하나씩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다 보면 꽤 긴 글이 만들어져서 뿌듯했어요.

왕○진: 영작할 때마다 워크시트를 사용해서 하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여러 문장을 연결해야 하는지도 알 것 같고,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영작을 하고 나면 수행평가 때 부담이 적어서 좋아요.

이○영: 반 아이들이 말하는 친구의 고민에 대한 조언 내용들이 재밌었어요. 또 비슷한 조언 내용들도 많아서 같이 영작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채우다보면 생각보다 쉽게 편지글이 완성됐어요.

정○현: 그냥 편지글을 쓰라고 하면 못쓸 거 같은데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고 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2. 인터넷 기반의 쓰기 평가 사례

1) 쓰기평가와 채점기준

본 수업에서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매 정기고사 때마다 실시되어 연 4회의 쓰기시험이 치러졌다(표 4). 모든 수준별 분반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채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행능력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 사이의 차이를 모두 변별력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가령 수행능력이 높은 학생들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채점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다 보면 보충반 학생들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의 점수 차가 너무나 근소하여 보충반 내 수행능력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수행평가에 앞서 이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분반 교사들 간의 채점기준에 대한 협의

가 있었고, 누적된 경험을 통해 교사들 간에 합의된 지점에서 채점기준이 마련되었다.

[표 4] 연간 쓰기 수행평가 내용

| 구분 | 평가 내용 | 설명 | 평가 기준 |
|----|----------------------------------|--|--|
| 1차 |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 그림 묘사 및 추론하여 글쓰기 | 어법에 맞게 제시된 그림에 대해 묘사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여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함 | 유효 문장 완성 개수 |
| 2차 | 친구에게 조언하는 편지글 쓰기 | 2가지 친구의 고민을 사전에 제시하고, 둘 중 한 가지가 시험 당일 학생에 따라 다르게 배부됨 | 과제완성(8문장 이상), 언어사용(문법, 철자 등), 내용 및 구성(주제 적합성, 논리성 등) |
| 3차 | 그래프 설명하기 | 총 4개의 그래프 제시 그래프 별로 3개의 완성된 문장 요구 (그래프의 내용,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항목에 대한 묘사,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항목에 대한 묘사) | 유효 문장 완성 개수 |
| 4차 | 자원봉사 계획 제시하기 | 그림 3 참조 인터넷 기반 평가로 진행됨 | 과제완성(9문장 이상), 언어사용(문법, 철자 등), 내용 및 구성(주제 적합성, 논리성 등) |

[그림 3] 쓰기수행평가문제 예시

-1. Write down your volunteering plan in at least 6 sentences using the 4 questions below.

1. **4개 질문의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 있어야 함.
2. **중심문장과 보조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 되어 있어야 함.
3. 어떻게 도와 줄 것인지 **3가지 내용**을 쓰시오.
- **각 단문 2문장 또는 중,복문 1문장**으로 나타내시오.

- 1) Who do you want to help?
- 2) Why do you want to help them?
- 3) How can you help them?
- **at least 3 things (각 단문2문장 / 중,복문 1문장)**
- 4) Where do you want to volunteer?

평가 문항에는 한 문단을 구성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최소한의 문장개수 등이 명시되었다(그림 3). 쓰기평가의 채점기준은 크게 과제완성, 내용 및 구성, 언어사용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과제완성은 제시된 과제에 대해 요구된 문장개수

를 충족시키며 단락을 완성하였는지, 내용 및 구성은 글이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연관된 뒷받침 문장과 함께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지, 언어사용은 문법 및 철자, 구두점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불완전한 수행에 대한 감점은 미완성된 문장 개수, 오류의 개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관적인 판단의 요소를 줄였다.

실제 국가영어능력평가 쓰기시험에서는 문장의 개수가 평가요소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제시된 주제로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구조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적절한 길이의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담화구조에 대한 이해 및 쓰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인터넷기반평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지필평가가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영어 수행능력 이외에 컴퓨터에 대한 친숙도나 영어 타이핑 능력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학생들이 유사한 환경에서 평가를 받아보게 함으로써 시험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수업이 진행된 학교에서는 학년말 1회의 쓰기평가를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기반의 시험으로 실시하였다. 실제로 인터넷 기반의 수행평가를 관리하고 감독해 본 결과 계획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사전 준비로 할애할 필요가 있었다. 시험 시작 전에 모든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등 매번 복잡한 작업⁷⁾이 필요했고, 분반별로 순서에 따라 수업 중에 컴퓨터실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생소한 시험환경이기 때문에 시험 전에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며, 시험 감독 중에는 컴퓨터나 프로그램 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하지만 시험 답안지를 관리하거나 채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장점이 많았다. 즉 시험 답안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어 분실에 대한 우려가 없고, 학생들이 저장한 글을 워드파일로 변환하여 읽으면 학생들이 직접 쓴 글씨보다 가독성이 높을 뿐 아니라 철자 오류 부분은 워드 프로그램이 표시해 주기 때문에 채점이 용이했다. 한편 지필평가로 진행된 이전의 쓰기 수행평가에서는 문장의 개수만 채점기준에 포함시키고 단어 개수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었는데, 인

7. 부록 3 참고.

터넷 기반으로 시험을 치르면서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단어 개수를 평가기준에 추가하였다. 이는 컴퓨터가 답안지의 단어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쓰기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는 결과를 얻었다. 문장의 개수만으로 평가할 때는 비교적 짧은 문장의 글도 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점수를 깎을 근거가 부족했지만 단어의 개수를 평가 기준에 추가하면서 다양한 수식어와 구체적인 표현들을 사용한 문장을 만들게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 상황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불안을 표시하였다. 낯선 시험 환경에 대한 긴장감을 표시하였고, 특히 보충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타 실력이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타이핑을 하면서 철자가 많이 헛갈린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실제 시험 중에 보면 종이(scratch paper)에 단어를 직접 써보면서 철자를 확인하고 다시 타이핑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학생들이 단어를 외울 때 보통 종이에 쓰면서 외우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방식과 표현해 내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발생한 혼란으로 해석된다. 실제 학생들의 답안지에 나타난 철자오류를 살펴보면, *childern*, *chidren*, *countres*, *participate*, *enuogh*, *povety*, *their*와 같이 철자 중 일부가 빠지거나 순서가 뒤바뀌는 형태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필평가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오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터넷 기반 평가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제로 유사한 상황에서의 시험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중심의 학교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 쓰기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그 변화의 흐름과 교육적 시사점을 나누고자 하였다. 물론 교육에서 시험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추구하는 바가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라고 판단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먼저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다. 이전까지의 수업방식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물론 크다. 읽기 수업처럼 할당된 수업시간에 다뤄야 할 지문이 정

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해당 주제에 대해 과업을 어떻게 조직하고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 창의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온라인 직무연수나 전공서적,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였고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a)이 펴낸 것과 같은 수업 지원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다면 주제별 적절한 활동과 자료의 검색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매번 시간에 쫓겨 수업을 준비하느라 수업의 논리적인 흐름이 치밀하지 못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동안의 수업 활동을 통해 쓰기수업이 읽기나 듣기수업에 비해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며 과업이 잘 구성될 경우 교사와 학생들에게 모두 만족스러운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쓰기수업에 대해 아래의 제언을 덧붙인다.

첫째, 효과적인 쓰기수업을 위해 학급규모의 축소는 필수적이다. 학생들의 실제적인 쓰기 활동은 각각 다른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교사가 한 명씩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일반적인 학급 규모의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지도가 불가능하다. 또한 수업 중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쓰기 과제를 제시했을 때 학생들마다 과제 완성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 일찍 쓰기를 끝낸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되는데 학급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학생들 간의 편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어렵다.

둘째, 읽기 수업과 연관된 쓰기 수업이 필요하다. 쓰기를 위해서는 영어 수행능력 자체 외에도 한 단락의 글을 보다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담화구성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제와 관련된 양질의 읽기 자료는 쓰기를 위한 적절한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쓰기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만드는 배경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수업의 경우 쓰기 위주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읽기 자료를 활용하지는 못했는데, 실제 쓰기 과정에 나타난 문제는 학생들의 쓰기 내용이 빈약하고 수업 또한 영어 문장표현에만 집중되어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이었다.

셋째, 학생들이 인터넷 기반의 쓰기 평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사한 시험 환경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긴장과 불안을 학생들이 표현하기 때문에, 국가영어능력평가가 수능을 대체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학생들은 새로운 시험

환경에 요구되는 자신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그럼에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수능영어를 대체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교육환경에서 입시의 결과가 주는 많은 의미 때문에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아직 학교현장에서의 쓰기 수업이나 평가는 주요한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들의 수행 능력이 기준에 맞게 향상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여전히 학교 교육보다는 이전의 학습 경험, 해외 체류경험 및 사교육의 영향이 수행능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로의 도입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부록 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쓰기문항 중 ‘그림의 세부 묘사 완성하기’ 유형 대비를 위한 수업절차

| | | |
|---------|--|---|
| 수업 목표 |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여 그림속의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 |
| 쓰기 전 활동 | 활동내용 | 1. 영어문장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2. 관련 어휘표현 및 현재진행형의 형태에 대한 학습 |
| | 목적 | ‘그림의 세부묘사’를 위해 현재진행형이 쓰이는 것을 이해하고 관련 어휘와 형태를 익히게 한다. |
| | 진행방식 | 교사가 선택한 그림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영어로 그림을 묘사한다 → 학생들은 들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교사가 선택한 그림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린 그림과 비교해보게 한다 → 교사가 그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영어 문장을 PPT로 제시하여 관련 어휘와 표현을 학습한다 → 그림 속 사람의 행동 묘사에 현재 진행형이 쓰였음을 이해하게 하고 현재 진행형의 형태에 대해 학습한다. |
| 쓰기 활동 | 활동내용 | 그림속 행동묘사 활동 (개인 / 모둠) |
| | 목적 | 현재진행형을 사용하여 제한된 단어수 이내로 그림속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수 있게 한다. |
| | 진행방식 | 1. 개인별활동 쓰기전 활동에서 학습했던 표현과 언어 형태를 상기하면서 자신이 그린 그림 밑에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을 현재진행형으로 완성하게 한다. 2. 모둠별활동 현재진행형을 사용한 그림묘사에 익숙해지면,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연속된 6개의 그림을 제시하여 모둠별로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하여 이야기를 만들게 한다. |
| 쓰기 후 활동 | 활동내용 | 모둠별 완성문장 공유 후 언어형태에 대한 복습 |
| | 목적 | 모둠별 발표를 통해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형태를 이해하게 한다. |
| | 진행방식 | 모둠별 발표 및 피드백 → 사용된 언어 표현 및 형태에 대한 복습 |

■ 부록 2 ■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친구에게 조언하는 편지글을 하나의 단락으로 완성하게 하는 수업절차

| | | |
|---------------|---------------------------------|---|
| 수업 목표 | 친구에게 조언하는 편지글을 한 단락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 쓰기 전 활동 | 활동내용 | 1. 조언할 때 쓸 수 있는 영어표현에 대한 학습 2. 편지의 구성 방법 및 내용에 대한 논의 |
| | 목적 | 편지글의 구성(시작-본문-끝맺음)을 이해하고 조언에 필요한 언어 표현과 형태를 익히게 한다. |
| | 진행방식 | 10대들의 고민에 대한 통계자료 제시하며 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조언할 때 필요한 표현(should, how about, had better 등)과 예시 문장제시 → 친구에게 조언하는 샘플 편지글 제시(글을 시작하는 표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말을 끝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의 예 제시) |
| 쓰기 활동 | 활동내용 |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친구에게 조언하는 편지글쓰기 |
| | 목적 | 모둠별 쓰기 활동을 통해 목적에 맞는 편지쓰기활동을 하게 한다. |
| | 진행방식 | 친구의 고민상황제시 → 교재의 샘플문장과 형식을 참고하여 모둠별 워크시트 완성 |
| 쓰기 후 활동 | 활동내용 | 모둠별 발표후 언어표현 및 형태에 대한 복습 |
| | 목적 | 모둠별 발표를 통해 자신과 다른 모둠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고 편지글의 내용과 형식을 이해하게 한다. |
| | 진행방식 | 모둠별 발표 및 피드백 → 사용된 언어 표현 및 형태에 대한 복습 → 과제로 친구의 새로운 고민에 대한 워크시트를 배부하여 개인별 복습 기회 제공 |

부록 3 시험 전 교수자 점검 사항

| |
|---|
| <p>1. 컴퓨터 기본 환경 설정 확인 제어판 ⇒ 관리도구 ⇒ 서비스 ⇒ AhnLab Task / Automatic Updates / Messenger / Security Center / Window Firewall ⇒ 서비스: 중지 / 속성: 수동 / 제어판 ⇒ 국가 및 언어 옵션 ⇒ 한국어 ⇒ 언어 탭 ⇒ 자세히 ⇒ 영어로</p> |
| <p>2. 관리자 PC 설정 https://*****.*** Center ID: ***** Username: ***** Password: ***** 좌측 메뉴: Test Setup ⇒ 해당하는 날짜(Program Administration) 클릭 해당 lab 실에 일치하는 것 선택 ⇒ Test Setup 선택 Instruction screen 확인 ⇒ next ⇒ Personnel screen 등록 Proxy server와 workstation 리스트를 확인 ⇒ confirm: yes ⇒ next Finish screen: 내용 확인 ⇒ finish ※ Pending Alert ⇒ Click here ⇒ accept 누르기</p> |
| <p>3. Proxy Server https://*****.*****.htm ⇒ 해당 administration 클릭 ⇒ submit Screen test ※ 화면 뒤집어지는 경우: 바탕화면 ⇒ 속성 ⇒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 설정 ⇒ 고급 ⇒ Intel ⇒ 그래픽 설정 ⇒ 회전 ⇒ 사용 안함 Start as Proxy Server / ※ Screen Lock 해제: [Ctrl]+[Shift]+[?]</p> |
| <p>4. Workstation https://*****.*****.htm 해당 administration 클릭 ⇒ submit Screen test부터 하면 됨 Start as Test delivery Quick Launch 화면 나오면 끝 ※ 관리자 컴퓨터로 이동 ※ 준비물: 종이(scratch paper) 3장, 연필 1개 확인 점검</p> |
| <p>5. Check-in 좌측 메뉴: Check-in List에서 이름 선택 ⇒ workstation 에 개인정보 안내 ⇒ 비밀번호 입력 후 Quick Launch 누르면 시험 실시 ※ 결시: 이름, registration No. 적어서 제출 ※ File CPR (Center Problem Report)</p> |
| <p>6. 종료 Workstation: close ⇒ Proxy Server: stop ⇒ Admin station: clean-up</p> |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부모정책설명자료-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안내』. Retrieved February 25, 2013,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mest.go.kr/web/279/ko/board/view.do?bbsId=45&boardSeq=24284>
- 국회입법조사처(201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 김용명(2010).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문항유형의 개발과 선별 원리 및 검사 지구성의 원칙”, 『영어교육』, 65(4). 313-342.
- 김은정(201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에 대한 중등교사들의 인식”, 『영어교육연구』, 24(2). 205-224.
- 민찬규(1994). “영어교육과 쓰기교육”, 『영어교육』, 48. 171-187.
- 박정민·김현주(2010). “영어쓰기평가기준에 대한 제고”, 『새한영어영문학』, 52(3). 217-237.
- 박지선·이문복(2012). “NEAT 말하기·쓰기평가도입에 대비한 고등학교 영어말하기·쓰기 교수·학습 현황분석”, 『현대영어교육』, 13(2). 121-149.
- 양만섭·손영귀(2009). “중등학교 영어쓰기교육의 실태분석”, 『영어교육연구』, 38. 106-135.
- 이은정(201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개발과 선행과제연구”, 『언어학연구』, 23. 167-188.
- 장수명·최형주(2004). “학급규모가 교사의 수업태도와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에 미친 영향”, 『한국교육』, 31(4). 123-154.
- 정성희(2012). “국가영어능력평가 쓰기영역 교수 및 평가를 위한 한국인 영어교사의 역할적 정성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5(1). 187-208.
- 최연희(2002). “채점자 훈련이 영어작문채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FACETS 분석을 통한 신뢰도 변화분석”, 『응용언어학』, 18(1). 257-29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평가방안연구-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RRE 2009-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a).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연계한 고등학교 영어수업모형개발: 말하기·쓰기를 중심으로(연구보고 RRI 2012-6-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b). 『고등학교 영어말하기·쓰기수업 현황분석과정정책제언(연구자료 ORM 2012-16-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c). 『고등학교 학습자의 영어쓰기 답화분석을 통한 의사소통능력신장방안(연구보고 RRI 2012-14)』.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d).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대비 영어말하기·쓰기평가매뉴얼-고

- 등학교용(연구자료 ORM 2012-67(CD))』.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e).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급 이렇게지도하세요! 교사용(연구자료 ORM 2012-53-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f). 『컴퓨터기반문제해결능력평가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연구보고 RRE 2012-5-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준·윤석화(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에 관하여: 영어교사들과 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외국어교육』, 11(3). 185-207.
- Andrews, S., Fullilove, J., & Wong, Y.(2002). “Targeting washback—a case-study”, *System*, 30(2). 207-223.
- Bailey, K. M.(1996). “Working for washback: a review of the washback concept in language testing”, *Language Testing*, 13(3). 257-279.
- Brown, H. D.(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 Cohen, A. D. (2001). “Second Language Assessment”.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515-534). Boston, MA: Heinle & Heinle.
- Grabill, J., & Pigg, S. (2010). *The writing lives of college students*. East Lansing, MI: Writing in Digital Environments Research Center. Retrieved February 25, 2013, from the World Wide Web: http://lms.colum.edu/pluginfile.php/127923/mod_resource/content/0/WIDE_2010_writinglives_whitepaper.pdf.
- Hughes, A. (2003).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 Taylor, B. P. (1976). “Teaching composition to low-level ESL students”. *TESOL Quarterly*, 10(3). 309-319.
- Willis, D., & Willis, J. (2007). *Doing task-base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머니투데이』. 2012. 5. 26., “26일 토플 시험, ETS 서버 이상으로 취소 ‘소동’”
- 『중앙일보』. 2013. 1. 16., “수능영어시험 NEAT로 대체... 3년 늦춰질 듯...”
-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52755> (검색일: 2013. 4. 11.)

■ Abstract ■

Introductory High School English Writing Class for NEAT Preparation

HYUNG-SIM CHOI**** · SEUNG-MI CHE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analysis of the English writing class taught to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ith low proficiency and address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Even though the 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has been introduced to integrate the 4 English skills –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 within English classes, there have been several barriers preventing this realization in Korean high schools. In general, Korean English teachers have expressed the burden of both creating practical content for unfamiliar speaking and writing classes, and providing evaluation that guarantees objectivity and reliability.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a writing class model centered on task-based activities and standardized evaluations patterned after Internet-based testing. Authentic language use requires writing skills with an understanding of discourse structure. However, current writing instruction routinely has centered around sentence-level composition. To rectify this, the inclusion of teaching and testing discourse-based writing will be presented. In conclusion, several advancements will be introduced to improve writing classes in Korean high schools.

Key Words: NEAT, English writing, Running Dictation, Picture Dictogloss

■ 논문투고 : 2013년 4월 30일 논문심사 : 2013년 5월 13일~5월 27일 게재확정 : 2013년 6월 5일

**** YONSEI UNIVERSITY.

***** SEOUL DIGITAL UNIVERSITY.